

# 황룡사지에 유물전시관 선다

## 문체부 내년 설계착수... 예산 48억 3층 규모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 있던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된다. 문화체육부는 6월 19일 2차 5개년 문화권유적정비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내년에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역시 내년도 예산에 유

물전시관건립 예산 48억원을 편성해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 이 계획에 따르면 유물전시관은 경주시 구황동에 건립되며 연면적 1천3백4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불상, 사리장엄구, 치미

등 찬란했던 신라불교의 모습을 보여줄 유물들이 일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은 경주시가 지난해 황룡사 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하는 등 국민들의 황룡사 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황룡사 복원계획의 시급성이 될 전망이다.

이 중원 및 영산강 유역 문화권 유적 정비사업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02년까지의 2차 5개년 문화권 유적 정비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3면>

이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정립사지, 선원사지 등 폐사지를 포함한 문화유적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6·25 영령 천도 육군 승진부대 호국금강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동호)는 6월25일 경기 포천 호국금강사에서 '제14회 6·25 전몰장병 및 희생 영령 합동 위령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봉선사주지 밀운, 도선사주지 동광스님, 정영진 승진부대장, 승재진 중앙신도회장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포천=김주일기자>

### 교계 북돋기 움직임

#### 1차분 5만톤 초과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원)가 7월말까지 1차분 5만톤이 사회 민간단체의 참여로 초과됐기 때문이다. 식량지원 신청을 위해 6월 25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했던 불교추진위 유지원 사무국장은 "다음 2차전달 시기에 가장 먼저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에 식량지원 촉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6월23일 '두만강변 현지상황조사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대량식량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훈춘과 도문 등 연변조선족자치주 두만강유역을 답사하고 돌아온 법륜스님은 "합경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역 등은 주민의 10~30%가 기아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1백만톤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 식량난 세미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은 6월26일 팔레스타인에서 북한동포돕기 전국 모금단체 초청 '북한 식량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의 식량위기를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의 장기대책의 필요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북지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NGO(비정부기구)와 국내 NGO간의 상호협력방안 모색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김정은 기자>

#### 강화 종교인협 발족

강화지역 사암연합회 회장 계성스님(코끼리유치원 원장)을 비롯 천주교, 가톨릭, 성공회 등 종교대표들은 6월 25일 성교회 강화를교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강화지역 종교인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강화지역 종교인협의회는 창립대회를 마친 후 강화시 내를 돌며 북녘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 불자들 온정 이어져

▲6월14~15일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어린이지도자대회에 참가한 7백여명의 어린이 지도자들은 62만4천2백80원의 성금을 모았다.

▲부천 석왕사 중·고등학교 학생회 회원 60여명은 매주 법회 보시금 31만6천5백원을 6월19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실상사 화엄학림(임승지장스님)소속 스님 12명은 7백52만원의 성금을 모아 6월20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관악산 연우암(주지 자승)은 대중스님들의 보시금과 과천신도회와 송파구신도회와 함께 실시한 떡 판매, 일일차집 등을 통해 모은 5백만원의 성금을 6월26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법안정사 부부 불자회(회장 국정환)는 북녘동포돕기 부부법회를 5일 저녁 7시 법안정사 대법당에서 봉행키로 했다. <김정은 기자>



△계성스님을 회장으로 강화종교인협이 발족했다.

## 중앙신도회 부회장 19명 선임

### 임원 월회비제 도입...재정자립 모색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24일 서울정동 신도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회의를 열고 김노인 신홍사신도회장(호텔 나산비치 회장) 등 19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회장단 및 주요임원의 월회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는 송재건회장을 비롯15개 교구신도회장, 총무원과 협의를 거쳐 이미 부회장에 선임된 7명 등 모두 23명의 운영위원이 참석,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신도회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단축에서는 월주 총무원장, 성타 포교원장, 총무부장 해참스님이 참석했다.

신도회 재정자립 방안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과 부회장 고문 지도위원 이사 감사 등이 일일직의 월회비 납부를 통해 재정을 마련키로 했다. 월회비액은 회당 1천만원, 부회당 50만원

등으로 7월부터 납부기로 했다. 신도회는 이에따라 연간 4억6천5백여만원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와 이사 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으며, 19인의 부회장 이외에 덕망있는 인사를 부회장에 계속 영입할 예정이다.

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노인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명호근(쌍용화재보험 대표이사) 안종일(변호사) 진민자(참여연 이사장) 홍명희(정문화학 부회장) 이상 삼일부회장 김인숙(국민대 교수) 김한곤(고함그룹 상임고문) 백영기(도선사 신도회장) 변광순(여성불교회 회장) 신기약(세종대 대표이사) 이연세(석왕사 신도회장) 이재훈(변호사, 청조법무법인 대표) 정인익(남양사 대표) 주영운(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최중대(대한한약협회 부회장) 홍성호(경기도의회 회장) 황석동(부산 대명여고 이사장) 홍옥진(조계사 신도회장).

## 여수 항일암 '관람료사찰로'

### 조계종, 57곳 요금인상

여수 항일암이 관람료사찰로 지정됐다.

조계종 관람료사찰위원회(위원장 설조·불국사 주지)는 6월 2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화엄사 말사인 항일암을 관람료사찰 지정을 비롯 전국 57곳의 합동·단독 관람료징수사찰에 대해 평균 56%의 관람료 인상을 결의했다. 이번 인상에

서 관람료사찰위원회측은 "인상된 관람료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달 중순경 관람료회의를 갖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이 요청한 문화재명에 관한 무료입장을 승인했으며 신도증소지자 무료입장에 대해 포교원 차원에서 재촉구공문을 발송할 것 등 관람료사찰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 강원교재 CD롬 2종 첫선

### 나우누리 승가학회 교학등 14개 분야 수록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승가학회 대표이사 송학수(조계종 승가대학원생)와 원광스님(법주사 중장)이 개발한 CD롬 2종이 6월 15일 첫선을 보였다.

이 CD롬은 경, 율, 론 삼장을 비롯 강원교재 논문, 법요, 불교

사지, 불화 등을 망라해 수록됐다.

7년여 작업끝에 나온 이 CD롬은 2백메가 약 1천4백여파일의 분량으로, 교학을 14개 분야로 나누어 국내외의 자료를 취합해 한글로 담았다. <관련인터뷰 4면>

"조계종엔 행자교육장을 설치할 사할 하나 없는가." 승가교육에 대한 개혁의식이 일기 시작했던 93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행자교육원 신설 화가 사찰이기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이 불교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사찰에서는 안된다는 발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자교육장이 설치될 경우 '사찰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이다. 행자교육장이 설치되는 말사는 사찰의 모든 인력과 행정력을 행자교육장에 쏟아 부어야 하고, 따라서 자연스레 교

육원 직속사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또 본사급 사찰 역시 연간 3백여명 이상의 행자들이 교육장을 차지하면 사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이같은 부담을 감수할 이

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찰이 문종

이나 주지의 전권운영이라는 압력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승가대학원은 은혜사에 설치됨으로써 은혜사는 하루아침에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교수양성기관으로 떠올랐다. 은혜사도 처음

엔 승가대학원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듯 결과는 달라졌다.

물론 승가대학원과 행자교육장이 규모나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의 궁극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임엔 분명하다. 불교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다는 데 사찰이기에기에 얽매어 이를 마다한다면 승가가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 불교계의 님비현상

승단의 진정한 개혁과 발전이 교육에 있음을 두말할나위도 없다. 행자교육장 신설하는 기초교육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물론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본을 확립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사찰이기에기에 불교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뉴스 & 뉴스

### 종현위배 심의청구 '가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위원장 정우등 5인)이 법규위원회에 청구한 4개의 안건이 모두 기각됐다. 조계종 법규위(위원장 벽파)는 6월 20일 회의를 갖고 △총무원장과 집행부의 징계예하 예정 종현위배 △총무원부서 증설과 폐지 종현위배 △직영 사찰예산의 집행 종현위배 위배 △총무원장의 불교방송 이사직 취임 종현위배 등에 관한 4개 사항에 대해 법규위원회 22조에 의거 불이행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 포교사연수 전국서 실시

포교사 연수교육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에서 개최됐다. 6월22일 종로구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지역 포교사연수에는 종로구청 강당에서 46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도 등록과 포교활동 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와 성타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같은 시간 부산·경남지역(동래법륜사) 대구·경북지역(동화사)에서도 각각 4백명과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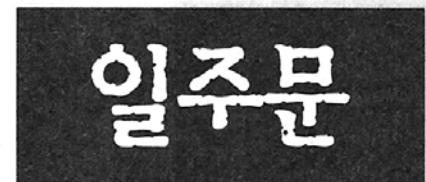
### 9일 복지시설 책임자 특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9일 오후 2시 사회복지교양대학 강의실에서 중앙교원 산하 31개 사회복지시설장과 복지재단 산하 12개 시설장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소진현상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 및 시설장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 목표달달 △중단 소속감 유지 △하반기 연수회 실시 등이 논의된다.

### 어진간병인회 3일 발족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3일 오후1시 종로구청 4층강당에서 어진간병인회를 발족한다. 어진간병인회는 5월 정부위탁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제1기 간병인교육을 수료한 70여명의 모임이며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무료간병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수지침 방송모니터 환경 수화 서예 한글야학 등 자원봉사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이 시대의 불자가 꼭 읽어야 할 불교 입문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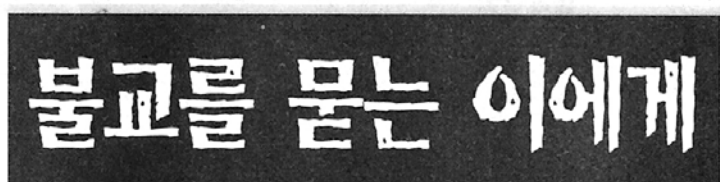
일주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업과 운명과의 관계, 불자 예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어려운 불교용어에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불·보살의 모습을 싫어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았다.
-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국판/윤지명 지음/256쪽/값 5,000원



이제 궁금증 뚫!! 오로지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문에 든 지 30여년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걷는 선승 석원선스님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

나의 귀여운 딸, 민들레의 눈길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에 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관판대장경"의 방대한 불경 속에 들어있는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활개치는 승려들의 주강 속에 담겨 있는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민들레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 지은이의 딸 중에서 — 신국판/석원선 지음/374쪽/값 7,000원

※ 불교, 제대로 알기 — 일주문을 통해 들어가 보십시오.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십시오.